

# 부라트 창세신화에 나타난 세계관과 문화변용\*

- 불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중심으로 -

이 은 경\*\*

## ■ 목 차 ■

- I. 서 론
- II. 완전한 신성으로서의 '여신'
- III. 에헤-부르한의 창조와 문화변용
- IV. 인간 기원 신화와 간문화적 접촉
- V. 결 론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부라트의 창세신화가 담고 있는 고유한 세계관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여러 문화의 영향으로 점차 변용되어왔음을 밝히고자 했다. 부라트족은 17~18세기에는 불교, 19세기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종교 문화적 영향은 그들의 신화에 깊숙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부라트족의 창세 신화에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타문화의 흔적들이 나타나며 동시에 트랜스바이칼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 요소가 존재한다. 부라트의 신화는 원형이 점차 다른 문화와의 접변을 통해 신화적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타민족과의 차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부라트 창세신화에 나타나는 신격(神格)과 인물 형상은 불교의 영향으로 보이며, 우주관에 대한 이해와 창조의 과정은 기독교에서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부라트의 창세 여신 에헤 부르한의 형상에는 불교 및 기독교적 상징과 더불어 인류가 최초의 신을 '여성'으로 표상했던 흔적에 이르기까지 인도-유럽의 신화에서 받은 영향이 나타난다.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하나의 완전한 신성을 지닌 위대한 어머니 여신 형상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부라트의 창세신화에 나타나는 자연물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 우주관은 트랜스바이칼 지역 소수민족들과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특성을 획득해나갔다. 따라서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타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9S1A5A2A03047607) 및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교수

다양한 변용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 I. 서론

부랴트의 창세신화에는 트랜스바이칼 지역 소수민족들의 신화에서 찾아보 기 힘든 여성 신이 등장한다. 그리스신화의 ‘가이아’, 한국신화의 ‘마고할미’, 제주신화의 ‘선문대 할망’,<sup>1)</sup> 중국신화의 ‘여와’, 야오족의 ‘미뤄터’ 등 다수의 신화에도 창세 여신은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랴트의 신화는 인근의 지역과는 구별된 자신들만의 독특한 서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우주와 세계의 시작을 묘사하는 창세신화가 주변 민족들과 비교해 상당히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만든다.

트랜스바이칼 지역의 거주민들은 몽골, 만주-통구스, 투르크 등의 민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는 동시에 서로 간에는 구별된 부분이 존재한다. 과거 이 지역은 민족이동이 잦았던 곳으로, 민족들이 점차 섞이면서 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신화 유형이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일반화된 신화 유형은 텡그리즘에서 비롯된다. 하늘 숭배 사상이 지배적인 이들의 신화는 신들의 세계와 지상 세계에서 경쟁과 타락, 조정의 과정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보니 텡그리를 다룬 작품들은 대체로 세계 창조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세계 창조 신화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체(조물주)가 언급되어야 하거나 하늘신에 대비되는 지상의 창조자로서의 데미우르고스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신들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텡그리들의 세계에서는 위계질서가 중시되며, 그들의 활약은 주로 세계 창조 이후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신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살아온 환경에 따라 형성된 민족적 특성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창세신화는 그 원형을 정확히 밝히기가

1) 정진희는 선문대 할망의 창조여신설이 아직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각색된 부분이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신 선마고와의 동일 인물설 등 여러모로 선문대 할망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 보편화된 통설 차원에서 선문대 할망을 창세여신으로 간주한다. 정진희, “선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 검토”, 『제주도연구』 . 51호, 2019, pp. 89-121.

어렵고 지역과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 안에서도 민족의 고유한 특징들이 구별된다.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주변 민족들과의 친연성과 함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부라트의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에헤 부르한(Эхе Бурхан) 형상이 인류의 신화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위대한 어머니 여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부라트의 문화에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이고 상반적인 태도가 특징적이다. 여성은 집안의 여주인이나 존중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도 남성 위주의 위계적 질서 속에 순종을 강요받는다. 부라트족이 마치 고대 사회의 위계질서가 보존된 문화집단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이러한 집단적 사고를 뒤엎는 여성 중심, 즉 창조 여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라트의 창세신화 속 여신 형상을 통해 부라트족의 여성숭배 사상과 자연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창세 여신 에헤 부르한의 신격(神格)과 창조과정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 타종교가 부라트족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17세기 불교가 부라트족에게 전해지고 18세기에 이르러 널리 퍼진 결과<sup>2)</sup> 부라트 신화에는 불교의 전통과 형상, 명칭이 반영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인이 부라트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에 이른다. 부라트 창세신화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창조과정과 상당히 유사할 정도여서 두 신화간의 매우 흥미로운 비교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 기원 신화에서 드러나는 간문화(interculture)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도 티베트 불교로부터 인도-유럽의 신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특성들이 부라트족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17세기 초 몽골에서 들어온 티베트 불교가 자바이칼 지역에 거주하는 부라트족에게 스며들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불교는 자바이칼 거의 대부분 지역에 퍼지게 된다.

## II. 완전한 신성으로서의 ‘여신’

인류학자 요한 야콥 바흐오펜(Johann Jakob Bachofen, 1815-1887)이 모권이 부권의 단계에 앞서는 인류보편적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모권사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문헌적 가설은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권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모권사회를 오늘날의 권력구조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계사회, 모권사회는 조화롭고 순수한 영역에서 성립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sup> 신라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인도 속의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라다크에도 고대 사회의 가족구조에서 나타나는 다부 일처제와 모권 중심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회와 종교에서 모권제 구조가 분명 존재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모권사회에 대한 개념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도 대입해볼 수 있다.

바흐오펜과 프로이트의 연구는 인간의 발전을 어머니와의 관계와 아버지와 의 관계 발전으로 이해한다<sup>4)</sup>는 점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이론을 설명하면서 현실의 어머니로 이해시키기보다는 한 인간에 있어 어머니의 이미지가 어머니의 실재성과 우주론적, 인류학적, 심리학적 기능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어머니’라는 존재는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인간의 심리 안에 늘 존재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흐오펜의 이론을 신화에 적용시켜보자면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민족 신화에서 창세 신에게는 인간과 달리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격을 확보하기 위해 조물주에게 성별과 같은 인간의 속성은 최대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진 신화 중의 하나인 그리스신화는 일반적인 신화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신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리스신화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인본주의

3) 신석기 시대의 주요 생활 방식에서 모권과 씨족 체계는 지배적이었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여성 신이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에 이르는 광대한 유라시아 지역의 ‘위대한 어머니’ 숭배를 비롯하여 셈족에게서도 친족 혈통은 어머니의 혈통이었을 만큼 여신 숭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 멀린 스톤, 『하느님이 여자였던 시절』, 정영목 역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5), pp. 51-78.

4) 에리히 프롬, 『여성과 남성은 왜 서로 투쟁하는가』, 이은자 역 (서울: 부북스, 2009), p. 27.

와 현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은 인간과 동일한 이성과 감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물론 그리스신화에도 세계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나 영웅적인 신들의 이야기가 그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 세계창조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부라트의 게세르 신화도 그리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영웅담의 틀로 전개된다. 투르크, 몽골, 통구스계 주민들의 텡그리(하늘 신) 숭배 사상은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북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너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텡그리들의 이야기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게세르 신화는 오늘날 몽골과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일대에 거주하는 부라트족의 민족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쪽 하늘에 살고 있는 55명의 선신(善神)과 동쪽 하늘에 살고 있는 44명의 악신(惡神)이 싸움을 벌이고 선신들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외의 결과가 인간 세상에 파란을 일으킨다. 찢겨져 나간 악신들의 신체 일부가 지상 세계로 떨어져 인간으로 환생하면서 지상에 가뭄과 홍수, 질병과 고통이 시작된다. 텡그리는 도탄에 빠진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들 아바이 게세르를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

신들 간의 힘겨루기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텡그리 신화는 남성 신들을 연상하게 만든다. 특히 ‘선조’, ‘아버지’란 뜻의 ‘아바이’는 게세르의 남성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부라트인의 민족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세르 신화를 고려할 때 부라트의 신화가 유독 남성 중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부라트 창세신화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데미우르고스는 정작 ‘여신’이라는 사실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우주의 구조를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로 인식해왔다. 부라트를 대표하는 게세르 신화에서도 텡그리는 하늘 신이자 아버지이다. 게세르 신화는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고 그들 간의 치열한 싸움과 삶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신화는 고유한 민족적 특징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앞서 텡그리 사상이나 게세르 신화와 달리 트랜스바이칼 지역뿐 아니라 인근 다른 민족들에게서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는 부라트족의 우주관과 세계관, 인간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인간의 관념 속에서 떠올리는 신의 이미지는 모두 남성이다. 신의 이미지가 고착된 데에는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종교의 서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구도로 구성되다보니 ‘여신’의 존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물론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화에서도 여신 형상은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여신은 남신의 상보적 역할일 뿐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다. 여신들은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남신들 간의 경쟁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불화와 미움, 버림의 아이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랜 역사 속에 존재해온 여신이지만, 그 형상은 주로 흥미위주의 이야기 속에 삽입된 작은 역할에 불과했다. 이는 신화와 종교가 극단적인 가부장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소수민족들의 신화와 종교에서 여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신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이미지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남신의 대립된 존재가 아닌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자체 내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리를 모두 가진 하나의 완전한 신성이다.<sup>5)</sup> 구석기가 지나면서 위대한 여신은 자신 안의 대립적 요소들이나 유사한 요소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생겨나게 했다. 단일한 존재로서의 위대한 여신은 어머니와 딸로 분화되고, 때로는 어머니와 아들 혹은 남편으로 분화된 것이다. 위대한 여신은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기능과 능력을 분화시켜간다. 이는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극대화된다. 그리하여 그녀는 위대한 ‘어머니’ 여신으로 불리는 것이다.

인간은 최초의 신을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구석기 시대의 조각상들에는 고대인이 원초적으로 사유하였던 우주와 자연의 법칙들에 관한 상징체계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연과 여성의 순환적 주기는 상호 유사한 생산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이 세계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방식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우주를 생산하는 자이며 우주를 보존하는 자이다.<sup>6)</sup>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원천으로 인식되었다. 이 세계

5)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 (경가: 살림, 2014), p. 6.

6) Ibid., p. 15.

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을 무한히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적인 법칙과 관련이 있다. 여러 신화에서 어머니 여신은 대지와 관련되어 등장하는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머니 여신으로부터 나와서 어머니 여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sup>7)</sup> 그리스신화와 수메르신화에 등장하는 가이아(Gaea)는 여성성을 지닌 땅으로 최초의 여신이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리스신화는 어머니의 힘이 강했던 모권 시대, 원시 모계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부권사회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의 신화들에서 여성 신은 신적 자질을 잃은 채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부장적 종교가 생겨나기 전 고대 유럽은 어머니 중심적이고 정착민이었으며, ‘위대한 여신’을 숭배하는 농경문화 또는 해양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대 유럽은 평등사회였으며 멀리 북쪽과 동쪽에서 온 기마 민족이자 반유목 민족인 인도유럽어족에게 정복당했다. 이 침입자들은 아버지 중심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며 하늘 지향적이었다. 침입자들은 자신들보다 문화적으로 더 발달한 정착민을 손 안에 넣었고, 스스로를 정착민보다 더 뛰어난 종족이라고 생각했다.<sup>8)</sup>

위대한 여신은 인류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생명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신이자 자연을 풍요롭게 하고 황폐하게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숭배를 받았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능력이나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에헤 부르한’을 통해 주체적 여신의 형상과 평화로운 창조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탱그리 사상과 게세르 신화가 남성 중심의 사고와 경쟁을 통해 조정되는 세계를 보여주었다면, 무한한 생산력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에헤 부르한은 남과 여라는 분리된 성(性)과 위계질서 이전의 단일하고 평등한 세계를 보여준다.

에헤 부르한의 창조는 부라트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7) 엘리야테에 따르면, 대지는 살아있는 형태들에 대지 자신의 본체로부터 생명을 준다. 대지는 다산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대지로부터 나온 모든 것에는 생명이 부여되고, 대지로 돌아가는 모든 것에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대지는 모든 거의 토대로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기초를 이루므로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대지를 숭배하는 것은 그 영원성 때문에, 모든 사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대지신앙은 인류의 삶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종교이며 농경구조 속에서 성립된 이해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 1』, 이용주 역 (서울: 이학사, 2014), pp. 324-340.

8) 진 시노다 불린,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조주현·조명덕 역 (서울: 포하나의문화, 2003), p. 41.

유라시아 대륙의 정중앙에 정착한 부랴트족은 몽골과 투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근대에 들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 으로부터 종교와 문화,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문화들의 혼합적 요소가 에헤 부르한의 형상에 담겨있다. 고대로부터 인간이 가져온 ‘대지-어머니 사상’, ‘모권에 대한 존중과 숭배’, ‘자연(물, 바이칼) 숭배 사상’과 더불어 불교, 기독교, 힌두교<sup>9)</sup>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발전해온 에헤 부르한의 형상은 부랴트만의 독창적 신화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 Ⅲ. 에헤-부르한의 창조와 문화변용

부랴트족의 창세신화에는 대모신(大母神) 에헤 예헤 부르한(Старшая богиня-мать – Эхэ Ехэ Бурхан)<sup>10)</sup>이 등장한다. 창세 여신의 명칭은 에헤 예헤 부르한 또는 에헤 부르한으로 일컫는다. 에헤(эхе)는 부랴트어로 ‘어머니’, 예헤(ехэ)는 ‘큰(большой)’,<sup>11)</sup> 그리고 부르한(бурхан)은 ‘부처(будда)’를 의미한다. ‘한’<sup>12)</sup>은 몽골어의 ‘칸’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왕을 호칭하거나 ‘부처’, ‘부처 칸’, ‘신’으로 번역된다. 부르한은 투르크-몽골어로 주권자, 통치자 및 그들의 직계 후손을 일컫는 칭호이다.<sup>13)</sup> 부랴트 신화에서 신들의 이름 뒤에는 ‘한’이

9) 힌두교가 부랴트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부랴트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 33과 3억 3천만의 신과 여신들은 힌두교 판테온의 영향이자 33 베다 신(Thirty-three Vedic Gods)에서 비롯된 것이다. E. Блаватская, *Тайная доктрина* (Смоленск: изд. центр “ТОК”, 1993), с. 116.

10) 에헤 부르한을 일컬을 때 이름 앞에 ‘연장의(старшая)’ 또는 ‘큰(великая)’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도 한다. 에헤 부르한뿐 아니라 만장 구르메, 미야스 하라 등 부랴트 신화에서 여신은 할머니 형상을 취하고 있다. 슬라브 신화의 바바 야가, 제주신화의 선문대 할망 역시 할머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 말에서도 할망, 할머니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의 ‘한’과 ‘어머니’가 결합된 단어이다. 신화 속 할머니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큰어머니라는 뜻으로 존경을 담은 존칭이자 오랜 지혜를 상징한다.

11) 부랴트-러시아어 사전(бурят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https://ru.glosbe.com/bua/ru> 참조.

12) 칸은 역사적으로 몽골족의 통치자나 군주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이슬람 사회에서도 계속 사용해진 용어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셀주크인과 호와레즘샤 사이에서 최고 귀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왔다. 칸은 몽골계와 튀르크계 민족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탱그리 칸(Тенгри-хан)처럼 신의 이름 뒤에 칭호로써 붙여지기도 한다. ‘왕’을 뜻하는 몽골어 ‘칸’을 한자로 옮기면 ‘한(汗)’이라는 발음이 되는데, 러시아어와 부랴트어로도 ‘칸’은 ‘한’으로 표기, 발음한다. 본문에 표기된 신들의 명칭에서 ‘한’은 ‘칸’을 의미한다. 이은경·김연수, “남시베리아 신화의 데미우르고스, 에틀리크 형상”, 『노어노문학』, vol.33, no.4, 2021, p. 124.

13) ‘부르한’을 아랍어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랍 이름으로 부르한(부루하누딘(Бурхануддин), 부르하누라(Бурханулла)은 ‘신앙의 공정함’, ‘신의 공정함’으로 번역되며, ‘증명하다’라는 뜻의 동사 바르한(бархан)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https://ru.wikipedia.org/>참조.

붙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에헤 예헤 부르한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어머니 여신(Великая мать богиня)을 뜻한다.

에헤 부르한의 창조와 관련한 부라트의 이야기는 머나먼 태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 옛날 울리게르신(Ульгершин, 이야기꾼)들이 부라트의 민중 서사시 『게세르』를 읊던 것처럼, “높은 하늘이 자욱한 안개로 덮인 아주 먼 옛날, 아주 초기에, 옛날보다 더 옛날에(ранее раннего, прежде прежнего, в изначально-далекие,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высокое небо было покрыто туманной дымкой...)” 일어난 일을 노래한다.<sup>14)</sup>

Когда огромный мир, ещё не разделенный на небо и землю, был покрыт водой. Когда не было ещё десяти тысяч небесных божеств, появилась Старшая богиня-мать – Эхэ Эхэ Бурхан. Родилась она единственной богиней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не было солнца и было темно; когда не было луны и было сумрачно. Не было звезд, и не было воздуха, не было даже лучей света.

Богиня-мать была преисполнена силы и мощи. И было ей скучно и грустно одной в этом крошечном мраке беспредельного мира. Одиночество тяготило её, и решила Эхэ Эхэ Бурхан сотворить для этой бесконечной ночи начало и конец. Разделила она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время. И сотворила свет и отделила его от тьмы. И стало это творение началом бесконечного времени.<sup>15)</sup>

아직 하늘과 땅으로 나뉘지 않고 있던 광대한 세계는 물로 뒤덮여있었다. 하늘 신이 아직 만 명도 되지 않았을 때 대모신 에헤 예헤 부르한이 나타났다. 그녀는 태양이 없고 어두웠을 때, 달도 없고 어스름하던 때 유일신으로 탄생했다. 별도 공기도 없었고, 한 줄기 빛조차 없었다.

어머니 여신은 힘과 기운이 넘쳤다. 그녀는 이 무한한 세계의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이 지루하고 우울했다. 고독이 그녀를 짓눌렀고 에헤 예헤 부르한은 이 끝도 없는 밤의 시작과 끝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빛을 창조하고 그것을 어둠과 분리시켰다. 그것은 끝없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발리하노프(Ч. Валиханов)는 탱그리라는 단어가 부라트족과 몽골족이 신을 일컫는 말인 ‘부르한’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탱그리는 고대 투르크-몽골민족에게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것이고 칭기스칸 시대에 이슬람교도들은 탱그리를 ‘알라’로, 유럽인은 ‘제우스’라는 단어로 번역했다(Ч. Ч. Валиханов,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М: Наука, 1986), с. 226). 발리하노프의 설명대로라면, 부르한 이전에 탱그리 개념이 존재했고 부르한은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탱그리 이전에 에헤 부르한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널리 알려져 있던 탱그리 신앙에 근거해 에헤 부르한을 창세신으로 정당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헤 부르한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기존의 탱그리 사상에 이후 불교와 기독교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4) Т. А. Дугаржапов, С. Э. Басаев, *Мифы и легенды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Улан-Удэ: Новая Бурятия, 2017), с. 10.

15) Д. А. Бурчина, *Гэсэриада западных бурят*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90), с. 116.

에헤 부르한의 창세신화는 단계별로 서술된다. 신화의 시작은 현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 10,000명의 하늘 신 텡그리가 있기도 전인 태고에 어머니 여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에헤 부르한이 천지를 창조하는 동기는 아주 단순하다. 칠혹 같은 어둠과 태고의 혼돈 속에서 홀로이 무료함과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던 에헤 부르한은 천지를 창조하기로 결심한다.

에헤 부르한이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자 우주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녀는 하늘에서 땅을 분리했다. 그러자 불을 생성하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늘과 땅 사이에 생긴 틈 사이로 작은 언덕이 나타났다. 그것은 빠르게 커지더니 곧 땅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모서리가 각각 남쪽, 북쪽, 서쪽 및 동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직사각형처럼 보였다.

에헤 부르한은 우주가 회전하는 우주의 중심에 별을 놓고, 그것을 알탄 가다스(Алтан гадас, 부랴트어로 ‘황금 말뚝’)라고 불렀다. 이 별은 알탄 세르게(Алтан сэргэ)라고도 불렀는데, 부랴트어로 ‘말을 매는 황금의 말뚝’이란 뜻이었다. 사람들은 우주의 한가운데에서 ‘수글란(суглан, 회의)’을 하러 모인 텡그리 신들이 자신들의 천마를 이 말뚝에 묶었다고 믿었다. 이 별은 모든 민족에게 북극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에헤 부르한은 멋진 새 안하타 슈부운(Анхата Шубуун)과 오리,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 아바르가 자가한(Абарга Загахан)을 만들었다. 아바르가 자가한을 바다에 풀어주자 모든 물고기의 조상이자 왕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신화적인 괴물 물고기가 바이칼에서 몸으로 호수를 가로질러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물고기는 13개의 지느러미와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어 사람, 동물의 무리, 심지어는 괴물 망가드하이(мангадхай, 망가타이라고도 불림)까지 삼켰다. 이 물고기는 마긴(Магин)이라고도 불리는 아바르가 자가한의 지상 화신이였다.

에헤 부르한은 하늘에서 27개의 머리와 33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뱀 아바르가 모고이(Абарга Могой)를 내쫓았다. 거대한 뱀 아바르가 모고이는 모든 뱀의 조상이자 왕이 되었다. 이 큰 뱀은 사람들을 돕는 새의 왕 한 헤르데그 슈부운(Хан Хэрдэг Шубуун 또는 가루디(Гаруди)라는 이름의 새로 불림)과 경쟁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아바르가 모고이는 결국 아버지 게사르에게 멸망당한다.<sup>16)</sup>

부라트의 신화는 모성의 원리와 함께 우주 창조의 우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힘과 기운이 넘쳐흐르던 에헤 부르한은 세계 창조에 자신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사용한다. 그녀에게 있어 힘은 곧 생명력을 의미한다. 에헤 부르한은 세계 창조의 과정 속에 다양한 만물을 창조해내며 무한한 생산력을 과시한다. 그녀의 마지막 창조는 인간이다. 에헤 부르한은 일출에서 양(陽)을, 그리고 일몰에서 음(陰)을 만들었고, 이 둘이 서로 만나 연합하여 최초의 인간인 파항(Паханг)과 투야(Туя) 오누이가 태어났다.<sup>17)</sup>

대부분의 창세신화가 그렇듯, 에헤 부르한의 창조 역시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대로부터 인간이 가져온 우주관에 따라 만물이 하나씩 창조되는 과정은 다른 종교와 민족들의 창세 신화와 전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신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은 트랜스바이칼 지역의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지역의 보편적 사고를 알 수 있게 한다. 창조행위가 신의 무료함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권위와 위엄을 추락시키는 장난스러운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료함은 활기 넘치고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의 신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발산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세계 창조는 신에게 있어 가장 역동적인 행위이다. 무료함이란 표현은 세계창조가 신에게 있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활력을 불어넣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부라트 신화는 유목민들의 종교철학과의 연관성이 있다. 정착민과 달리 이동이 잦았던 만큼 여러 민족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흔적이 신화 속에도 드러나고 있다. 인류가 출현한 초기부터 사람들은 문화적 타자와 접촉을 해왔고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은 생태적 맥락에 대한 적응과 간문화적 접촉에 따른 문화변용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 변용은 문화 집단과 집단의 일원이 접촉한 결과로 발생하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간접적일 수도 있고, 접촉 이후 오랜 기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문화적, 심리적 지체에 의해 지연될 수도 있고 반동적일 수도 있다.<sup>18)</sup>

거주지의 변화와 식민화 같은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은 상이한 문화적 적응의

16) С. А. Токарев,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в 2 т.* Т. 1. (М.: Сов. энцикл., 1980), с. 163-165.

17) Н. О. Шаракининова, *Бурятский фольклор* (Иркутск: Кн. изд-во, 1959), с. 40-47.

18) 존 W. 베리, 『문화적응과 변용』 이대희 역 (서울: 에코리브르, 2020), pp. 10-33.

시간을 거치게 만들고 이어 문화적, 심리적 변이와 변화를 일으킨다. 부랴트의 신화는 이와 같은 타문화에 의한 직, 간접적인 변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이다. 부랴트족이 적어도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외부의 문화적 영향을 거부하거나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의 회귀와 같은 극단적 반동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헤 부르한의 창조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엿보이고 그것의 변용이 있다는 점은 부랴트족이 타문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부랴트의 우주론적 신화의 편린들은 난해한 의미를 지닌다. 태초의 어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물, 세계의 어머니와 같은 것은 모두 여러 전통에서 언급된 것들이고, 블라바츠키야(Е. Блаватская)의 비밀 교리에 체계적으로 언급된 밀교 우주론적 요소이다. 이것은 신지학에서 말하는 ‘신들의 어머니’이다. 동양의 밀교에서 등장하는 힌두교 여신 아디티(Aditi)와 우주 공간이자 보편적인 어머니인 로마의 여신 케레스, 모든 영혼과 모든 우주 신과 신성한 이성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가 그러한 어머니들이며 숭배의 대상들이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소피아(Sophia, 지혜)로, 카발라의 『조하르(Zohar)』에서는 세피라(sefirah)로 불렸다. ‘아버지 신’에 대한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나중에 고안해낸 것이다.<sup>19)</sup>

에헤 부르한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 상황에 주목해보자. 이 부분은 기독교의 창세기 시작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sup>20)</sup>로 시작한다. 이 구절과 에헤 부르한의 등장을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창세기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먼저 이뤄진 후 그 이후 창조의 과정이 전개되는 반면, 부랴트의 창세신화에서 에헤 부르한은 세계의 묘사가 먼저 이뤄지고 난 후에야 등장한다. 에헤 부르한에 의해 창조된 세계 이전에 이미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에헤 부르한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에헤 부르한 이전에 이미 창조된 세계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소수민족 신화들이 인과관계와 논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근거에 따르자면 에헤

19) Е. Блаватская, Указ. соч., с. 110-117.

20) 본 논문의 성경 인용은 모두 개역개정판을 따르고 있음을 밝혀둔다.

부르한은 유일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두 번째로는 창조 이전 세계에 대한 묘사이다. 부라트 신화에서 광대한 세계는 분리되지 않은 채 물에 덮여있었다. 창세기에서도 창조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술된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물은 모든 형태에 선행하며 모든 창조를 떠받치고 대지는 살아있는 형태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물은 형태가 없는 것 잠재적인 것의 원리로서 모든 우주적 표명의 존재이자 모든 씨앗의 용기로서, 모든 형태가 발생하는 원초의 물질을 상징한다.<sup>21)</sup> 엘리아데는 원초적인 대양과 그 위를 떠도는 창조신의 이미지가 대단히 고대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테마는 메소포타미아 창조신화에는 없는 내용으로 물의 ‘혼돈’은 인격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우주의 창조를 위한 전투에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2)</sup>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다. 부라트 신화와 창세기 모두 동일하게 태고 시대 ‘물’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혼돈에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과 거대한 전투를 통한 비관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에헤 부르한의 창조와 창세기의 내용은 평화롭고 ‘선한 창조’를 강조한다. 에헤 부르한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는 순서 역시 창세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순서	에헤 부르한의 창조	기독교의 천지창조
1단계	시공간 분리	빛(낮과 밤)
2단계	하늘과 땅의 분리	궁창(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3단계	불	육지, 육지의 식물, 바다
4단계	별	해, 달, 별
5단계	새, 오리, 물고기(어류)	하늘에 사는 동물(조류), 바다에 사는 생물(어류)
6단계	사람	육지에 사는 동물, 사람

에헤 부르한의 창조와 기독교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분리에서 시작되며 우주를 채우는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상을 채우는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이뤄진다. 기독교에서 창조의 시간은 ‘날(日)’로 표현

21) 미르치아 엘리아데, op.cit., p. 265, 342.

22) Ibid., p. 251.

되지만, 에헤 부르한의 창조에서 이러한 시간은 구체적이지 않다. 창세기의 ‘날’은 인간의 시간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 이야기의 창조 일수가 다르다거나 시간 차이를 논하기란 어렵다. 중요한 것은 두 창조의 과정이 고대인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창조되는 피조물과 그 순서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동시에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의 주체이다.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는 가장 극단적인 가부장적 태도가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문헌이다.<sup>23)</sup> 기독교는 서유럽과 미국의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 근간을 마련했던 만큼, 서구의 텍스트가 극단의 남성적 성격을 띠고 가부장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한몫했다. 세계 창조와 우주의 생성이 남성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은 기독교의 천지 창조에 남성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최초로 행해진 창조는 빛의 탄생이다. 빛은 남성원리를 상징한다.<sup>24)</sup> 인간 창조에 있어서도 남성의 우위가 강하게 드러난다. 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지만, 남성이 먼저 창조된 다음 홀로 있는 그를 위해 여성이 창조되는 과정은 여성이 전형적인 남성의 보조역할임을 강조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하위의 존재임을 확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에덴동산에서 내쫓기게 된 인간의 타락이다. 뱀의 유혹에 여성이 먼저 이끌리고 그 다음 남성을 타락하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구약성서의 창조와 타락의 과정에는 최초의 위계질서에 대한 흥미로운 전복(顛覆)이 숨겨져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설명한다. 신의 형상을 닮은 ‘남과 여’의 쌍은 양성적인 신성에 대한 고대의 표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남녀의 위계질서와 창조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가 창조된다. 아담을 돕는 역할이자 그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하와에게 주어진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지고 아담의 입을 통해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라는 고백이 나온다.

23) 에리히 프롬, *op. cit.*, p. 85.

24) *Ibid.*, pp. 86-88.

이는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관념을 뒤엎는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역설적이면서 반자연적인 창조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여신이 등장하는 고대의 신화들은 보다 자연관에 가까운 사고에 기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도 최초의 어머니인 대지는 남성 원리인 물에 의해 적셔지고 그녀의 자궁에서 인간이 나온다. 보통 대양은 여성을 상징하고 담수, 강, 비는 남성 및 수정과 결실의 원리를 상징한다.<sup>25)</sup>

샤락시노바(Н. Шаракишинова)는 『게세리아다(Гэсэриада)』를 비롯하여 부라트 신화에는 아버지 신이 창조에 실패한 뒤 그의 적대자가 수행하는 우주론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밀교적 모티프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sup>26)</sup> 『게세리아다』의 한 버전에 따르면 우주를 창조한 에헤 부르한이 잠들어 있는 사이 에헤 슈드헤르(Ехэ шудхер) 또는 아르한슈드헤르(Арханшудхэр)라고 일컫는 큰 악마가 두 손으로 땅을 잡아 쥐다. 이에 에헤 부르한이 크게 꾸짖자 악마는 자신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며 산들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이곳을 내려가고 올라가며 마귀를 저주하고 신에게 간구할 것이라고 말한다.<sup>27)</sup> 부라트의 또 다른 신화에서 에헤 슈드헤르는 서방의 사탄과 뱀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을 상실하게 하고 하늘의 신성한 본성을 잃게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들쭉신다.<sup>28)</sup>

신화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주로 어둠의 세계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헤 부르한을 지하 세계의 신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녀의 창조는 경쟁과 다툼, 거대한 전투가 없는 무(無)에서의 창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선(善)’이다. 그렇기에 부라트 창세신화 시작은 텅그리 이전의 세계에 에헤 부르한이 홀로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녀에게서 굳이 어두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책임이 에헤 부르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조건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의 창조는 선했고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일 뿐이다. 천상과 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결투 역시 에헤 부르한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25) Ibid., pp. 87.

26) Н. О. Шаракишинова, *Мифы бурят* (Иркутск: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е кн. изд-в, 1980), с. 17-30

27) Д. А. Бурчина, Указ. соч., с. 116.

28) Блаватская, Указ. соч., с. 236.

결투와 조정은 텅그리들의 등장과 게세르 이야기, 또는 에헤 부르한이 창조한 데미우르고스 마야스 하라(Маяс Хара)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헤 부르한에게서 창조와 관련된 ‘검은’ 자질이나 지하 세계의 관장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여성의 형상을 지닌 데미우르고스라는 점에서 에헤 부르한을 슬라브신화의 바바 야기(баба-яга),<sup>29)</sup> 힌두교의 칼리 여신<sup>30)</sup>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에헤 부르한의 세계 창조는 부랴트족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엘리아데는 기독교의 성경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대의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텍스트들이 집성된 것이고, 수세기에 걸쳐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고 수정되고 편집된 오래된 구전 전통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sup>31)</sup> 몽골의 신화학은 샤머니즘의 보고이자 출발 지역인 바이칼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몽골의 창세신 보르항은 13세기 몽골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중의적으로 개념화가 시작되었다. 정용찬, 김용범(2015)은 몽골의 창세 신 보르항과 창세기와의 유사성을 찾아내면서 두 서사 간에는 유사 신화소가 존재하며 설명이나 목적에 따라 추가 서술이 삽입되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에헤 부르한의 창조에서 중첩된다는 것은 부랴트의 텍스트 역시 여러 시대와 문화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집적물임을 확인시킨다. 또한 여성에 대한 고대 신앙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시대와 종교, 공간을 뛰어넘는 부랴트의 흥미로운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9) 슬라브신화의 바바 야가와 마찬가지로 부랴트 신화에서도 만장 구르메와 마야스 하라가 할머니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마야스 하라의 ‘하라’는 ‘검은(чёрная)’을 뜻하는 것으로, 이 역시 힌두교의 칼리 여신의 면모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구에서 여신 관음이 넓은 의미의 여신 운동과 페미니즘을 만난 개종 불교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타라, 칼리, 두르가 등 비서구 종교의 여신들 역시 인기 있는 숭배대상이 되게 된 데에는 불교의 영향이 컸다. 개종 불교도들에게 관음은 ‘불교의 자비의 여신’으로 통용된다. 김명숙, “서구 여신담론과 관음의 젠더”, 『한국여성학』, 29권 4호, 2013, p. 87.

30) ‘대(大)카리’라는 뜻의 마하칼리라고도 불리는 칼리는 힌두교 전통에 의하면 우주의 영원한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 여신이다. 검은 지모신(地母神)이자 시간과 죽음의 신인 존재이다. 전통적인 여성상인 아름다움보다는 파괴적인 무시무시한 여신으로 살육의 신이면서 자애로운 면모 가진 양면성을 지닌 여신이다.

31) 미르치아 엘리아데, op. cit., p. 249.

32) 정영찬, 김용범, “문화적 할인의 관점으로 본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창세 신’”, 『동아시아고대학』, 36호, 2014, pp. 282-296.

#### IV. 인간 기원 신화와 간문화적 접촉

고대부터 몽골 부라트의 신과 영혼의 세계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텡그리 신들이 사는 천상계와 사람의 세계인 중간계와 지하계가 있다. 본질과 내용 면에서 이 세계는 몽골인과 투르크인의 신성한 세계에 가깝다. 부라트족과 몽골족, 투르크족의 천상 판테온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투르크족과 부라트족, 몽골족의 신들 중 일부는 고대 인도-아리아인과 그들의 후손인 이란인과 인도인에게서 나왔다. 고대에는 이들이 지리적 공간에서 평행과 교차를 반복하며 일상적 이동이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섬기던 신과 종교들까지 전해지면서 신화나 구전이야기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는 부라트의 세계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불교는 부라트의 고대 신성한 세계가 끝없는 시간 동안 태어나고 살고 죽는 수많은 세계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과 땅의 기초를 세우는 데에도 불교관이 반영되었다.

불교의 신들도 몽골 부라트의 신성한 세계에 들어가 텡그리즘의 기반을 크게 바꿔놓았다. 고대 몽골 부라트의 텡그리들은 영원한 불교 본질의 구현이었다. 몽골과 부라트에서는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전통신앙의 영향으로 바뀌었고 몽골 부라트의 신성한 세계를 많이 흡수했다. 부라트의 신앙이 전통불교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다.

부라트의 불교는 티베트와 인도에서 동북아시아로 건너온 종교적 불교의 기초와는 다르다. 이러한 불교(라마교)는 일반적으로 샤머니즘 또는 부(Boo) 텡그리즘이라고 불리는 초기 부라트 종교를 많이 흡수했다. 부(Boo)는 전통 숭배의 성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텡그리와 다른 신적 존재들을 숭배하는 샤먼이다. 따라서 부라트의 불교는 샤머니즘의 요소를 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석가모니는 18~19세기 부라트의 서사시와 전설에서 구르반 시베게니 부르한(Гурбан Шибэгэни Бурхан), 즉 시베게니(Тройной Бог Шибэгэни) 형상으로 나타난다. 몽골어에서 차용한 구르반 시베게니 부르한을 번역하면 삼불(三佛)이다. 이는 불법승, 즉 부처, 교법, 승단의 삼보(三寶)에 대한 불교 윤리 사상과 연결된다.<sup>33)</sup>

부라트족의 의식에는 고대 불교 신들과 함께 게세르 서사시에 언급된 훨씬

33) Т. А. Дугаржапов, С. Э. Басаев, Указ. соч., с. 78.

오래전의 고대 천신 텡그리가 여전히 공존한다. 샤머니즘 텡그리의 일부는 이름을 바꾸어 불교의 신성한 판테온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민중 신화의 영웅으로 구현되었다.

몽골 부랴트의 텡그리들은 우주와 사람들의 세계를 창조했다. 태양에서 기원한 서쪽 텡그리와 달에서 기원한 동쪽 텡그리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웠다. 천상의 서쪽과 동쪽의 텡그리들은 상층 천상계에서 중간계 왕국을 두고 경쟁했다. 또한 그들은 중간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싸웠고, 지하 세계의 사람들과 악령들과의 관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신화에 따르면 텡그리는 99개의 하늘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와 후손인 한(хан)과 노이온(нойон)<sup>34</sup>도 천국에 정착해 살거나 땅을 오가며 산다. 텡그리들로 이뤄진 수많은 판테온은 계층적으로 천상의 거주민인 텡그리와 그 자녀들로 나뉜다. 그들은 ‘한’이라고 불린다. 텡그리와 마찬가지로 ‘한’ 역시 백(白)과 흑(黑)으로 대비되는 서쪽의 선신과 동쪽의 악신으로 나뉜다. 서쪽 한의 군주는 한 샤르가이 노이온(Хан Шаргай Нойон)이고 동쪽 한의 군주는 에를리크 한(Эрлик-хан)이다. 에를리크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지하 세계의 주인이므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대상이었다. 부랴트의 텡그리를 대체한 불교 신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부처는 다른 종교의 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는 신들을 숭배하면 참으로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들을 끝없는 고통의 사슬에서 떼어 놓거나 최종 목표인 구원, 즉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sup>35</sup>

부랴트의 창세 신화에서 인간은 자연의 산물에서부터 탄생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물이 어느 순간 인격을 갖게 되면서 최초의 인간들이 탄생한다. 초기 부랴트 신화에서 모든 인물은 선과 악으로 나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인간을 보호하는 좋은 힘은 영원한 푸른 하늘로 후혜 문헨 텡그리(Хухэ Мунхэн тэнгри)라고 불리며, 어머니 대지는 울겐(Ульгень)이

34) 노이온(нойон), 노엔(ноен) 등으로 책마다 표기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는 몽골어의 소리를 러시아어로 가장 근접하게 표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일치로 보인다. 몽골어에서는 ‘노용’으로 표기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 발음 그대로 전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후 언급되는 한 샤르가이 노이온, 부하 노이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35) Т. А. Дугаржапов, С. Э. Басаев, Указ. соч., с. 38.

고 태양은 나란(Наран), 달은 카라(кара), 새벽노을은 솔본(Солбон)으로 불린다. 이들은 처음에 비, 바람, 천둥, 불과 같은 비인(非人)의 형상이었다가 각각 인간의 모습을 갖기에 이른다. 이 신화적인 인물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영원한 푸른 하늘(Вечное Синее Небо)이다.<sup>36)</sup>

영원한 푸른 하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팔과 다리 없이 움직이며, 지상에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주고 전쟁과 질병을 쫓아내고 화재와 흉수를 진압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을 번성시키는 땅과 물의 주인이다. 영원한 푸른 하늘에게 음식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말을 타고 가며 순조롭게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가축이 번식하고 마음에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다. 영원한 푸른 하늘의 신화적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지 어머니 울겐 에헤(Улгэн эхэ), 울겐 델헤이(Улгэн дэлхэй)는 형태가 없는 비인(非人)의 형상이다. 이 두 형상은 처음에는 특정한 실체를 표현하다가 뒤늦게야 신성(神聖)을 획득한다.

에헤 부르한이 직접 이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 대신 에헤 부르한이 만든 피조물인 신들이 등장해서 세계 창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신의 위계질서와 분류에서는 항상 대비되는 존재가 있고 이러한 대조 밖에 존재하는 별도의 완충지대(물, 제3의 창조물)가 있다. 이 부분에서 에헤 부르한이 창조한 데미우르고스로서 울겐(Ульген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웅긴 부라트<sup>37)</sup> 신화에 따르면 에헤 부르한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뒤 야생오리를 만들고 야생오리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진흙을 부리에 물어온다. 에헤 부르한은 이 진흙으로 어머니-땅인 울겐<sup>38)</sup>을 빚고 그런 다음 땅 위에 동식물을 만든다.<sup>39)</sup> 우주 창조 신화에서 원초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의 모습 또는 수중 동물의 모습을 한 창조자가 세계 창조에 필요한 물질을 가져오기 위해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창조신화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원초적 구조는 선사시대

36) Н. Л. Жуковская, *Символика культов и ритуалов зарубежной Азии* (М.: Наука, 1980), с. 98.

37) 웅긴 부라트(унгинские буряты) 또는 발라간 부라트(балаганские буряты)라고 불리는 부라트족은 웅가 계곡과 그 지류, 오카 강 중부와 앙가라 서쪽 강변에 분포되어 있다. 부족의 절반 정도가 이들보다 더 큰 종족인 블라가트 부라트(булагаты)로 흡수되었다. 블라가트는 13-17세기 가장 큰 부라트 종족 중 하나였다. 북부에는 17세기 이키나트 부족연합(икинатский племенной союз)으로 들어간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에헤 부르한 이야기는 바이칼호 서안의 서(西)부라트에게 더 널리 퍼져 있다.

38) 울겐은 ‘넓직한(широкая)’, ‘무한한(необъятная)’의 뜻을 지닌다. 울겐은 탕그리처럼 원래 특정한 신을 지칭하는 명칭(최고 천신)으로 사용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명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모신의 역할인 울겐(Ульген, Ульгень)은 ‘어머니 울겐’이란 의미로 울겐 에헤(Ульген эхэ)로 불리기도 한다. 트랜스바이칼 지역의 신화들에서 울겐은 대체로 ‘큰(большой)’의 뜻을 갖는다.

39) С. А. Токарев,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в 2 т.* Т. 2. (М.: Сов. энцикл., 1980), с. 674—675.

초기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다.<sup>40)</sup> 그러므로 에헤 부르한과 야생오리의 이야기는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반복되어온 익숙한 신화 유형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에헤 부르한이 만들어낸 대지(大地) 울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몽골계 및 샤안 알타이 투르크계 민족들의 신화에서는 울겐이 창조주인 반면, 울겐에 대립되는 존재인 에를리크가 데미우르고스로서 등장한다. 부랴트의 창세신화에서는 울겐과 에를리크의 관계가 에헤 부르한과 지모신(地毛神) 울겐으로 나타난다. 울겐은 고대와 중세 문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존재이다.<sup>41)</sup> 대신 부랴트의 신화에서 에를리크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에를리크 한으로 등장하여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트의 창세신화가 고대의 것이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늦게 그 형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에헤 부르한이 선악을 대변하는 두 신을 창조하고, 이들이 세계 창조에 관여하게끔 한다. 에헤 부르한은 태양에서 만잔 구르메(Манзан Гурме)를 창조하고 달에서 마야스 하라(Маяс Хара)를 창조한다. 만잔 구르메는 에헤 부르한의 딸로 등장하기도 한다. 만잔 구르메와 마야스 하라는 둘 다 여신으로 역시 데미우르고스로서 기능한다. 선한 신 만잔 구르메는 모든 선한 신들을 창조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사악한 마야스 하라는 악한 신들과 악의 근원 인간 파향과 투야 오누이를 만들어냈다. 웅긴 부랴트의 버전에서는 인간의 창조주가 에헤 부르한이 아닌 마야스 하라로 나오는데, 이를 순자의 성악설과 연결시켜볼 수 있다. 악신(惡神) 마야스 하라에 의해 탄생된 인간은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랴트의 창세신화에는 이처럼 지하세계의 신들, 즉 데미우르고스와 일종의 하데스 왕국,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부랴트족의 가장 오래된 인간 기원 신화 중 하나는 천둥의 신 후헤르데이 메르젠(Хухэрдэй мэргэн), 물을 다스리는 우하 로손(Уха Лосон, Уха Лусан, Уха Лобсон), 숲을 주관하는 노부부인 오리엘(Орьел)과 소리엘(Сорьел), 서방의 모든 선신(善神)들의 수장인 만잔 구르메(Манзан Гурме)와 그녀의 아홉 명의 아들과 아홉 명의 딸 등에 관한 것이다. 부랴트 신화에서 이들은 태초의 완전무결한 시작(положительное начало), 선과 악 사이의 적극적인 투쟁,

40) 미르치아 엘리아데, *op. cit.*, pp. 54-55.

41) 이은경·김연수, *op. cit.*, p. 127.

이 땅의 악을 근절하고 자연의 힘을 인간에게 종속시키려는 욕망을 구현한다. 선한 힘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완성시킨다.

은하수는 만잔 구르메가 자신의 손자인 아바이 게세르에게 젓을 물리려고 따라다니다 쏟은 우유에서 생겨났다. 부라트어로 7명의 장로를 뜻하는 돌론 우브게드(Долон убгэд)라고 하는 큰곰자리 역시 만잔 구르메가 아바이 뒤를 따라가다가 던진 일곱 개의 해골로 만든 일곱 개의 자개도자기 잔에서 나왔다.

부라트 신화에서 어둠의 세력은 여러 신들과 영혼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악한 세력은 악신들의 우두머리인 사악한 할머니 마야스 하라와 그녀의 13명의 아들과 7명의 딸, 이름 없는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 망기스들(мангыс)과 망가드하이,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태양을 삼킨 아르한 슈트히르(Архан Шутхыр, ‘악마 아르한’이라는 뜻)와 달을 삼킨 알하(Алха)이다. 아르한 슈트히르와 알하의 음모는 신화에서 일식과 월식으로 드러난다.<sup>42)</sup>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세렘 미나타, 굴 돌렌(또는 누르만)은 정수리에 불타는 눈 하나를 가진 힘있는 괴물이며,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입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잡식성 포식자 에에렌 구레한(пестрый хищник Ээрэн гурэхан), 노란색의 광견 가니크(Ганиг, 구니크(Гуниг)라는 명칭으로도 나타난다), 새로 태어난 긍정적 영웅을 질식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보내진 거대한 뱀 아바르가(Абарга) 등이 등장한다. 고대 신화에서 동물 세계의 대표자들은 종종 인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인간과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 짐승과 새는 보통 사람들의 조력자이고, 신들도 현명한 고슴도치 자랴아 아자르가(Заряя Азарга, ‘전능한 고슴도치’라는 뜻)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부라트족의 인간 기원 신화는 4개의 버전으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에헤 부르한의 창조설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에헤 부르한의 창조 신화는 기독교와 많은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교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에헤 부르한의 이름이 ‘부처’라는 것과 부라트 지역에서 에헤 부르한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면 불화의 여신 묘사와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인간 파항은 티베트 신화의 선조와 산신의 기능을 결합한 존재 마상(Масанг)에서 유래했다.<sup>43)</sup> 마상은 티베트 최초의 인간을 대표한다. 마상은 산신이자 남신으로 큰

42) М. Н. Хангало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 томах*. Т. 1. (Улан-Удэ: кн. изд-во, 1958), с. 327–328.

43) С. А. Токарев (ред.), *Указ. соч.*, с. 1113.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티베트 불교에서 마상은 종교의 수호자이다. 서사시에서는 황소머리를 한 존재이자 암소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라사(티베트의 수도)에 온 ‘얼룩빼기 황소’가 악마와 전쟁을 벌일 때 블랙야크로 변신하여 악마를 죽인다. 이에 대한 상으로 땅에는 왕이 생겨나고 신이 통치자가 된다. 악마에게서 탈출한 마상은 신(лха, 티베트어로는 lha) 으로부터 하사받은 5개의 보리알을 던져 쇠사슬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지만, 악마가 던진 공에 몸이 일곱 개로 찢겨져 복두칠성이 되고 만다. 마상은 몽골 신화에서는 바상(Басанг), 돌론 에부겐(Долон Эбуген)으로 등장하며 부랴트에서는 파항으로 나타난다.<sup>44)</sup>

두 번째 창세 신화 버전은 에헤 부르한보다 앞서 상하부 평면으로 나뉘는 2차원의 세계가 존재하였다는 세계 창조 신화이다. 이 버전에서는 하부 평면에 네 개의 행복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에서 황금 버드나무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에서 인간의 형상이, 그리고 네 번째에서 불이 형성되었다. 인간 형상에서 에헤 부르한이 기원했다. 황금 버드나무의 뿌리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 부다르그(Бударг)와 그의 친구인 전설의 새 안하타 슈부운(Анхата Шубуун)을 만들었다. 그녀는 바다에서 전설의 물고기 아바르가 자가한(Абарга Загахан)을 만들었고, 불로 태양을 만들었다.<sup>45)</sup>

세 번째 버전에서 인간의 창조자는 부르한 삼불(Бурхан Самбол)이다. 새(鳥) 안가티(Ангати)가 대양의 밑바닥에서 삼불에게 붉은 진흙을 구해다주자, 그는 돌로 뼈를 만들고 물로 피를 만들어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다. 판본마다 안가티는 안기르(Ангир), 또는 순구타(Шунгута)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그 다음 신기빌(Шингибыл)과 톨티 칸(Тольти хан) 두 신(神)이 누가 사람을 소생시킬 것인지를 제비뽑기 한다. 이들은 후에 불교 신화와 전설에서 석가모니와 미륵으로 대체된다. 톨티 칸이 속임수로 승리한 결과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대신 속임수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sup>46)</sup>

마상은 불교 국가인 티베트와 칼미크 공화국의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부랴트에서는 파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으나, 마상이 불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던 형상인 만큼 부랴트 역시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Там же, с. 645.

45) К. Хадаханэ, *Сборник шаман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ахинских, бильчирских бурят. Рукопись*, ЦВРК ИМБТ СО РАН. Инв. № 121-122: в двух тетрадях. Верхнеудинск, 1926, с. 32-33.

46) Т. А. Дугаржапов, С. Э. Басаев, *Мифы и легенды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Улан-Удэ: Новая Бурятия, 2017), с. 28.

네 번째 버전은 바이칼 부라트인의 기록에 나타나는 인간 기원 신화이다. 대양으로 가득했던 최초의 대혼돈 속에서 아버지 은기둥(баабайн мунгэн бахана)과 어머니 황금 자궁(эхэйн алтан умай)이 만나서 이 땅에 최초의 사람들이 나타났다.<sup>47)</sup> 또 다른 부라트 신화에 따르면 흰 황소 형상을 한 부하 노이온(Буха-Нойон) 신이 산에 통로를 만들고 자신의 남근으로 우윳빛 바다에 여울을 만들어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sup>48)</sup> 오래전부터 시베리아 중심부와 바이칼 호수 중앙의 바르투진-토콤 주변의 땅은 부라트인의 요람으로 여겨져 왔다.

부라트 서사시에는 바람의 주인, 푸른 하늘의 주인, 물의 주인, 바이칼의 주인에 대한 신화가 존재한다. 말로예 모레(Малое море) 근처 절벽에 사는 새는 올혼 섬(остров Ольхон)의 주인으로 존경받는다. 부라트의 각 종족들은 자신의 보호자와 수호자를 갖고 있다. 각 부족은 부족의 기원과 연관된 물고기, 새, 짐승들을 토렘으로 숭배한다. 불가가트(булагат)에게는 회색 황소가, 에히리트(эхирит)에게는 얼룩뺨기 모캐(burbot)가, 호리(хори)족에게는 백조가 토렘이다. 각 부족들은 매년 바이칼 호수의 작은 호수들과 산, 강의 영혼을 숭배하는 종교의식 타일라간(тайлаган)을 수행한다.<sup>49)</sup> 부라트 신화에서 조상 황소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부하 노이온 숭배 사상으로 발전된다. 수세기 동안 부하 노이온 신화는 수정되어 왔고, 각 시대마다 새로운 동기에 의해 이 이야기들은 더욱 풍성해지는 흔적을 남겼다. 신화에는 부라트족의 역사적 운명과 개별적인 민족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부라트 신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늘 땅 숭배는 투르크-몽골 민족 형성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대 숭배의 흔적은 부라트 신화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투르크인의 신화적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부라트의 텡그리사상의 표현에서도 발견된다.

부라트의 창세신화는 민족의 기원이 몽골에서 유래한 만큼 몽골 신화와 유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부라트족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베리아의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유사해지거나 러시아의

47) Н. Л. Жуковская, Указ. соч., с. 97.

48) И. М. Денисова, “Мосты времён: космологические архетипы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Г. С. Баранкова (ред.), *Древнерусская космология* (СПб.: Алетейя, 2004), с. 411.

49) Л. Ц. “Малзурова, Бурятские легенды о тотемах”, *Грамота*, № 1(5): в 2-х ч. Ч. 2. 2010, с. 133-135.

영향을 받으면서 몽골과 차별화된 부분들이 보인다. 크게는 에헤 부르한의 천지창조신화, 게세르 신화(텡그리 신화, ‘문화영웅’으로서의 게세르 신화, 세계조정신화), 해와 달 신화(에헤 부르한의 자녀들), 바이칼 신화, 샤먼 신화 등으로 나뉜다. 바이칼과 관련된 신화는 에헤 부르한의 창조 과정의 하나로 드러나는 것과 바이칼의 생성만을 다룬 신화 등이 존재한다. 부랴트 지역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발달했던 지역인 만큼 텡그리와 샤먼을 다룬 신화들이 풍성하며,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는 항상 대칭 구조, 선악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게세르 신화』에서 게세르는 텡그리의 명령으로, 또 다른 판본에서는 부처의 요청에 의해 지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평정한다. 『게세르 신화』의 기본 골격 역시 선악의 대립이며 중국에는 선의 승리로 끝이 난다. 부처가 직접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선악의 대립 구도는 인도와 이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조로아스터교가 이 지역에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랴트족 신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물’이다. 부랴트족은 바이칼 호수 주변에 거주하는 만큼, 자신들의 기원을 바이칼의 물과 연관시킨다. 이들의 거주 공간에서 바이칼은 생명의 원천이자 늘 극복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대자연의 위협을 의미했다. 바이칼은 그렇게 두 개의 영역을 품은 물의 신이었다. 부랴트의 신화에서 물의 신은 선과 악에도 속하지 않은 신이었다. ‘물’, ‘대양’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상징한다. 앞서 에헤 부르한처럼 물은 성(性)의 구별이 없는, 선악의 구별이 필요치 않은 총합체를 의미한다.

물은 잠재성의 보편적 총체를 상징하고 근원이자 원천으로서, 모든 존재의 기능성의 저장소이며 모든 형태에 선행하고 모든 창조를 받쳐주는 것이다. 물은 형태를 분해하고 소멸시킨다. 그런 만큼 그토록 ‘배야’가 풍부하고 창조력이 뛰어나다.<sup>50)</sup> 부랴트의 신화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는 다양한 생산으로 주목하게 만든다. 태고의 신이 거주하던 공간도 물이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재료(흙)도 물속에서 취했으며, 호수와 강의 신들은 부랴트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조정해왔다.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물’의 상징이 부랴트족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바이칼에 시원을 둔 민족이기

50)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서울: 까치, 2018), pp. 165-175.

때문일 것이다.

부라트의 인간 기원 신화,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물들의 탄생에는 간문화의 흔적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 사회에서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하나의 신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확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상호교류가 없는 별개의 사회집단들이 자연적 혹은 지리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접하며 살아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별개의 독자적인 상상력으로 그 정황을 유사하게 해석해나가는 ‘분산’이 있다.<sup>51)</sup> 부라트는 티베트불교와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초 위에 신화적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부라트의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텡그리즘은 불교의 영향으로 더욱 철학적이고 체계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라트의 신앙이 불교의 판테온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했다. 또한 기독교와 힌두교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부라트족은 타 종교의 신화유형과 문화들을 반복하거나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오랜 신앙에 뿌리를 둔 채 차츰 변용의 시기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신화의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따라서 부라트의 신화는 다양한 문화간 교류 속에 타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자신들만의 문화로 발전시켜나간 문화유산이었다.

## V. 결 론

부라트족이 어느 민족으로부터 파생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몽골계 민족으로 외몽골을 비롯하여 바이칼 호수 인근에 널리 정착해 살고 있으며 민족이 형성된 기원은 6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민족이 형성된 시기를 이보다 한참 늦은 13-14세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라트족이 고대로부터 존재했는가, 아니면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민족 유형으로 정착하게 된 것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오늘날 언급되는 부라트족은 티베트-몽골로 이어지는 알타이계, 투르크계 민족들과 친연관계를 갖고 있으며, 민족의 이동 경로와 정착을 고려할 때 비교적

51) 사무엘 헨리 후크, 『중동 신화』, 박희중 역 (서울: 범우사, 2001), p. 28.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후자의 가설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 있다.

본 논문은 부랴트의 창세신화가 타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변용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밝히고자 했다. 창세신화는 그 특성상 발생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란 어렵지만, 구비로 전해져오는 가운데 세월을 거치며 문화적으로 새로이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다.

근대에 이르러 부랴트 지역으로 불교와 기독교가 차례로 들어왔다. 이로 인해 불교와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계의 신화들이 부랴트의 신화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랴트족의 초기 신앙이었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불교와 기독교의 전래로 인해 차츰 혼합되거나 대체되는 등의 문화변용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는 원시종교에 익숙해 있던 부랴트족이 타종교와 타문화의 유입으로 받은 영향이 상당했음을 증명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걸쳐 변용의 과정을 거쳐 온 부랴트의 신화와 종교에는 여전히 그들 본연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의 생산력과 관련된 대지와 물에 관한 ‘어머니’ 상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부랴트의 창세신화는 부랴트의 뿌리와 이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포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숙. “서구 여신담론과 관음의 젠더”. 『한국여성학』. 29권 4호, 2013.
-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 1』. 이용주 역. 서울: 이학사, 2014.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역. 서울: 까치, 2018.
- 멀린 스톤. 『하느님이 여자였던 시절』.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5
- 사무엘 헨리 후크. 『중동 신화』. 박희중 역. 서울: 범우사, 2001.
- 이은경·김연수. “남시베리아 신화의 데미우르고스, 에를리크 형상”. 『노어노문학』. vol. 33, no. 4, 2021.
- 정영찬, 김용범. “문화적 할인의 관점으로 본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창세 신’”. 『동아 시아고대학』. 36호, 2014.
-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 경기: 살림, 2014.
- 정진희. “선문대 할망 창조 여신설 검토”. 『제주도연구』. 51호, 2019.
- 존 W 베리. 『문화변용과 적응』. 이대희 역. 서울: 에코리브리, 2020.
- 진 시노다 불린.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조주현, 조명덕 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2003.
- Блаватская, Е. *Тайная доктрина*. Смоленск: изд. центр “ТОК”, 1993.
- Бурчина, Д. А. *Гэсэриада западных бурят*.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90.
- Валиханов, Ч. Ч.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М: Наука, 1986.
- Дугаржапов, Т. А., Басаев, С. Э. *Мифы и легенды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Улан-Удэ: Новая Бурятия, 2017.
- Жуковская, Н. Л. *Символика культов и ритуалов зарубежной Азии*. М.: Наука, 1980.
- Малзурова, Л. Ц. “Бурятские легенды о тотемах”. *Грамота*. № 1(5): в 2-х ч. Ч. 2. 2010.
- Токарева С. А. (ред.)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 1.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0.
- Токарева С. А. (ред.)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 2.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 Шаракшинова Н. О. *Бурятский фольклор*. Иркутск: Кн. изд-во, 1959.
- Шаракшинова Н. О. *Мифы бурят*. Иркутск: В.-Сиб. кн. изд-во, 1980.
- Хангалов, М. 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 томах*. Т. 1. Улан-Удэ: кн. изд-во,

1958.

Хадаханэ, К. *Сборник шаман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ахинских, бильчирских бурят*. Рукопись. ЦВРК ИМБТ СО РАН. Инв. № 121-122: в двух тетрадах. Верхнеудинск, 1926.

## Abstract

## World-view and Cultural Transformation Shown in Buryat's Creation Myth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

Eunkyung Yi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nique world-view contained in the Creation Myth of the Buryats, and to reveal that the content has been gradually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cultures. The Buryats are supposed to be originated from various group of people who settled in the area where they live today around the 13th and 14th centuries. The Buryats were influenced by Buddhism in the 18th century and by Christianity in the 19th century, and these religious and cultural influences are well reflected in their mythology. Therefore, in the Creation Myth of the Buryats, there are traces of other cultures that have influenced them, and at the same time,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easily found in North Asia including the Transbaikal area. It seems that the myth of the Buryats,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ose of other ethnic groups, came to have its own specific characteristics since its archetype progressively developed into a mythological form by assimilating with other cultures.

It seems that the images of gods and figures appeared in Buryat Creation Myth are influenced by Buddhism, while the conception of the universe and the understanding of how universes are created have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Furthermore, in the image of the Buryatian Goddess of Creation, which is Ehe Burhan (Эхе Бурхан), along with Buddhist and Christian symbols, we can also trace human life, when people presented the very first God as a 'woman'. The image of Great Mother Goddess with one perfect divinity, as the source of all life, contains a complex mix of cultures and traditions. The understanding of natural objects, world view,

and cosmology appeared in the Creation Myth of the Buryats have similarities with those of the ethnic minorities of the Transbaikal reg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acquired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Creation Myth of the Buryats is influenced by other cultures and has undergone various transformations to have today's form.